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조성 본격화

현대건설, 자동차 연구시설도 추가 ... 2015년까지 557만제곱미터 개발

현대건설이 충남 서산시 부석면 일대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대모비스 자동차 연구 시설 설치계획을 밝혀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서산시에 따르면, 특구 사업자인 현대건설은 최근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조성계획 변경 신청서>를 서산시에 제출했다.

변경신청서에 따르면, 특구 면적은 종전과 같이 566만9000㎡로 유지되지만 관광·체육·공공시설 91만5000㎡가 교육연구시설로 변경되고 사업기간도 2012년까지에서 2015년까지로 연장된다.

현대건설은 특구의 골프장을 당초 36홀에서 27홀로 줄이고 승마장 부지를 축소해 현대모비스 자동차 연구소와 주행시험장 등을 조성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08년 12월 특구 지정 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바이오·웰빙특구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서산 바이오·웰빙특구는 천수만간척지 B지구 일대에 첨단 바이오단지 등 교육 및 연구시설 104만㎡와 테마파크 및 숙박시설 등 관광시설 117만㎡, 골프장과 승마장, 생활체육시설 등 112만㎡, 실버 노인복지시설 11만㎡, 기타 도로와 생태수로, 녹지 226만㎡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들은 현대건설의 입장을 환영하며 자동차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주민 서명운동에 나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충청남도예 연구시설 유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7/25>